

향가 《도솔가》의 독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김영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이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48페이지)

민족문화유산은 선행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며 그것을 옳게 평가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향가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로서 그것을 옳바로 독해하고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언어문학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향가는 리두식표기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향찰로 씌여진 우리 나라의 독특한 가요형식이며 오랜 력사를 가지고 전해오는 귀중한 민족문학유산의 하나이다.

향가에는 당시 작자의 세계관과 미학관, 창작당시의 시대상과 언어상태가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연구는 우리 문학사와 언어사의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향가와 관련한 연구는 일찍부터 관심사로 되어왔는데 20세기이후 독립적인 저술로 되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 ① 량주동: 《조선고가연구》(1942년)
- ② 홍기문: 《향가해석》(1956년)
- ③ 정렬모: 《향가연구》(1965년)
- ④ 류 렬: 《향가연구》[주체94(2005)년]

그런데 이 저술들에서는 향가의 독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있어 그 독해에서는 아직 더 논의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오늘까지 전하는 향가가운데서 널리 알려진것의 하나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도솔가(兜率歌)》를 들수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 19년(A.D. 760년) 음력 4월 초하루날에 해가 둘이 나타나서 열흘이 되도록 없어지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을 불러다가 산화공덕(散花功德)을 행하면 이런 변괴를 막을수 있다고 하여 마침 지나가던 월명(月明)이라는 중을 불러 의식을 하면서 노래를 짓게 하였더니 얼마 안가서 해의 괴변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때 지어 부른 노래를 《도솔가(兜率歌)》라고 하였다.

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향가 《도술가》는 소중한 문학유산으로 될뿐아니라 이 시기의 언어를 연구하는데서도 귀중한 자료로 되기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어 그에 대한 독해를 시도하였는데 그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고가연구》(량주동, 1942년)에 반영된 《도술가》에 대한 독해 ①

오늘 이에 散花 불어
 썩호썩본 고자 너는
 고든 막스민 命人 브리옵디
 彌勒座主 되서와

《향가해석》(홍기문, 1956년)에 반영된 《도술가》에 대한 독해 ②

오늘 이리 散花 불러
 썩호스본 고자 너는
 고든 마스민 명으르 브리아디
 미륵좌주 모셔라

《향가연구》(정렬모, 1965년)에 반영된 《도술가》에 대한 독해 ③

오늘 이에 디화 디랑
 고보 슬본 화야 너는
 고든 마스민 시김스 브리오직
 미륵좌주 모셔스랑

《향가연구》[류렬, 주체94(2005)년]에 반영된 《도술가》에 대한 독해 ④

오늘 이리 산화 불러
 바보 슬본 가시야 넌
 고든 마숨이 부리로 부리아기
 미리 자주 모시어라

이처럼 향가 《도술가》에 대한 독해는 학자에 따라 서로 같은것이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것이 있다.

우선 《今日》을 《오늘》의 표기로 보는 점에서는 다 같다.

그리고 《此矣》에 대해서는 《이에 / 이리》의 두가지 독해가 있는데 그 차이는 《矣》를 어떻게 보겠는가와 관련되어있다.

①에서는 《此》를 뜻으로 읽어 《이》로 보고 《矣》를 《에》의 음을 적은것으로 보면서 《此矣》를 《이에》로 보았으며 ③에서는 《此矣》를 《이에》로 독해하는데서 같지만 현대어의 표현으로는 《당장》이란 말에 가까운 뜻으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②에서는 《此》를 《일》의 표기로 보고 거기에 《矣》의 모음을 첨부한것으로 보면서 《이리》로 독해하였다.

④에서는 《此》는 새김으로 읽고 《矣》는 음을 빌어서 비슷한 소리에 쓴것이라고 하면서 역시 《이리》의 표기로 보았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실린 해석을 보게 되면 《龍樓此日散花歌》로 되어있어 문맥상 《今日此矣》를 《오늘 이에》로 보기보다는 《오늘 이리》로 독해하는것이 타당할것 같다. 그러나 ③의 주장처럼 거기에 《당장》이라는 강한 의미적색채가 첨부된것으로까지 보겠는가 하는것은 문제라고 본다.

다음으로 《散花唱良》에 대해서 ①에서는 《散花 불어》로 보면서 《唱》의 고행은 《브르》이고 《ㄹ伴入》이 생김은 후차적현상》이므로 《唱良》은 《블러》보다 《불어》가 고행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②, ④에서는 《블러》로 독해하였다. 즉 ②에서는 15세기 국문문헌자료에 비추어 《唱良》은 《블러》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④도 같다.

이와는 달리 ③에서는 《散花唱良》을 《디화디랑》으로 독해하면서 《散花》는 현대어의 《지와》 내지 《지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唱良》은 《디랑》으로서 《디다》의 명령법으로 《떨어지라》, 《넘어지라》의 《지라》와 같은 뜻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散花》를 《산화》라고 읽지 않는 리유는 해제에서 《지금 세속에서 이것을 산화가라고 하는것은 잘못이다. 도술가와 별개로 산화가가 따로 있다.》고 해설한 구절을 들고있다.

그러면서 해제에 《散花功德》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식에 대한 명칭이지 산화가를 불려서 지성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散花》는 《散花歌》의 략칭으로서 《도술가》가 원래 《散花歌》로 지어졌기때문에 《散花唱良》라고 하였다는 ①의 주장도 무시할수 없다. 그렇다면 《散花唱良》의 《散花》는 실상 《도술가》를 가리키는것으로 될것이다.

다음으로 《巴寶白乎隱》의 《巴寶》에 대해서 ①, ②에서는 《뽕호》 또는 《뽕호^호》로 보고있으며 《白乎隱》은 《썰본》 또는 《스본》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서 ③에서는 《고보솔본》으로 보면서 《巴寶》는 《고보》인데 그것은 《곡(曲)다》의 뜻으로서 《곡(麗)다》의 뜻을 겸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巴》는 새김으로 읽고 《寶》는 음으로 읽은것인데 《寶》는 《곡》의 《ㅂ》을 하철한것이라고 하였다.

④에서는 《바보솔본》으로 보고있는데 그 근거로 이 향가의 한시번역에서 《挑送》이라 하였고 또 불교의식의 하나로서 《散花》를 고려한다면 《뽑아보내다》, 《빼여보내다》의 뜻으로 짐작할수 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巴寶》는 《뽑다》의 옛 형태로 추정되는 《뽕-》의 한 이음형태인 《뽕아→보바》의 변종으로서의 《바바/바보》에 대한 소리웁김일수 있다고 하였다.

이 해석은 독특한것으로서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뽑다》의 옛 형태인 《뽕다》를 추정하고 다시 그 이음형태의 변종으로서의 《바바/바보》까지 추정하여 독해하려고 시도하는것은 이중추정으로서 무리가 있다.

《巴寶白乎隱》는 ①, ②의 독해가 타당한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花良汝隱》에 대해서 ①은 《고자 너는》으로 독해하였는데 ②도 역시 같다. 이에 대해서 ④는 《가시야 넌》의 표기로 보면서 《花》는 《꽃》의 옛날말인 《가시/고시》에 대한 뜻웁김이고 《良》은 많은 경우 《라/러》나 《아/어》에 대한 소리웁김으로서 흔히 토의 표기에 쓰이나 여기서는 모음 《ㅣ》 아래에 쓰인 호격로 《아》에 대한 변종인 《야》의 소리웁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汝隱》의 경우에는 《汝》가 대명사 《너》에 대한 뜻웁김이

고 《隱》은 도움토 《ㄴ》에 대한 소리웁김이라고 하였다.

④의 주장은 ①, ②와 기본적으로 같으면서도 《도술가》를 창작할 당시의 언어상태에 대한 독해자의 독특한 견해를 반영한것으로서 이 점에서 일정한 특색을 가지고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③의 경우에는 ①, ②, ④와는 전혀 달리 해석하고있다.

여기서는 《花良》을 《화야》로 보면서 단순하게는 《히》의 근사음으로 리용한것이라고 하면서 《순수치 않은것, 성실치 못한것을 〈花〉라고 하는데로부터 ... 앞에서 〈꼬브라진〉(巴寶白乎隱)이라 하였으니까 일정한 평가를 내린것이지마는 부르는 이름까지 멸시하게 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따라서 《花良汝隱》은 《해야 너는》을 표기한것으로서 뒤에 오는 구절까지 합하여 《해야 너는 당장 없어지라》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에 대하여 ①에서는 《고든 믁스민 命叱 브리 읍 디》로 독해하고 ②에서는 《고든 믁스민 명으르 브리아디》로 독해하여 큰 차이가 없다. 다만 《惡只》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인데 ①에서는 《惡只》를 《읍디》의 속음(俗音) 《옥기》로서 《惡知, 惡只》와 같은것인 《읍디 - 읍디 - 읍기 - 옥기》에 해당한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惡只》를 《惡知, 惡支》와 같은 토의 표기로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쓰인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④의 경우에는 《고든 마숨이 부리로 부리아기》로 독해하고있는데 그것은 이 시기에 아직 《△》와 《·》가 생겨나지 않았다는것과 《디》보다는 《기》가 더 오랜것이라는것 그리고 이 시기에 《命》이라는 한자말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한편 ③의 경우에는 《고든 믁스민 시김 사브리오직》으로 독해하고있다.

독해의 차이는 《命叱使以惡只》에 있는데 《命叱》을 ④에서 《부리로》로 독해한데 대해서 ③에서는 《시김 사》으로 보고있는것이다. 즉 ③이나 ④나 다 《命》을 한자말로 보지 않고 고유한 우리 말의 뜻웁김으로 보는 점에서는 같은데 《부리》로 보느냐 《시김》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惡只》에 대해서도 《오직》으로 읽고 차사(嗟辭)로 보느냐 또는 토 《아기/어기》로 보느냐의 차이도 있다.

마지막으로 《彌勒座主陪立羅良》의 독해인데 《彌勒座主》의 《彌勒》이 미륵보살을 가리키는 말이고 《座主》가 불교적회합의 좌상을 가리키는 말이니 이에 대해서는 독해상 차이가 없다. 다만 《陪立羅良》의 독해가 문제인데 ①에서는 《陪立》을 《뫼셔》로, 《羅良》을 감탄의 종지조사 《와》의 표기로 보았다.

②에서는 《陪立》을 《뫼셔》로 보는데 대해서는 ①에서와 같이 해독하면서도 《羅良》은 《러라》로 볼수도 없고 그렇다고 《와》로 볼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良羅》를 거꾸로 쓴것이라고 하면서 《안민가》의 《治良羅》, 《처용가》에서 《四是良羅》의 《良羅》와 같은 토의 표기라고 하였다.

④에서는 《彌勒座主》를 《미리자주》의 표기로 보면서 《彌勒》은 우리 말에서 《미리》라고 하는데 《未尸》(《삼국유사》 권4)로도 표기한다고 하였으며 《座主》는 좌상의 옷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자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陪立羅良》에서 《陪立》은 《모시다》의 《모시》이며 《羅良》은 《良羅》을 잘못 쓴것으로서 《良》은 이음토 《아/어》의 소리웁김이고 《羅》는 맺음토 《라》에 대한 소리웁김이라고 하였다.

③에서도 《彌勒座主》를 한자말의 표기로 본 점에서 ①, ②와 같은데 《陪立羅良》은 다르게 독해하고있다. 즉 《陪》는 《뫼셔》의 표기이며 《立羅良》의 《立》은 《스》, 《羅》는 《라》, 《良》

은 《ㅇ》의 표기로서 《스랑》으로 된다는것인데 《良》은 둘째 구의 《散花唱良》과 운을 맞추기 위하여 첨가한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彌勒座主》를 한자말의 표기로 본 점에서 ①, ②, ③의 견해는 같은데 《陪立羅良》의 독해에서는 서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羅良》이 《良羅》를 잘못 쓴것으로 본 점에서는 ②와 ④가 견해상 일치하고있다.

이처럼 향가 《도술가》의 독해에서는 학자들마다 견해상차이가 존재하고있는데 ④의 경우에는 추정한 당시의 언어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독해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한편 ③의 경우에는 이 노래가 4음조 8구로 되어있고 차사(嗟辭) 《惡只》를 가지고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노래를 3장의 구조를 가지고있는것으로 분석한 점이 특징적이다.

(초장) 오늘 이에
디화 디랑
교보솔본
화야

(중장) 너는
고든 ㅁ으미
시김 ㅅ브리

(종장) 오직
미륵 좌쥬
모셔스랑

③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있으므로 이 노래는 민요체와는 다르며 사뇌가체에 접근한것으로 볼수 있으니 《도술가》에 차사가 있어 사뇌가와 비슷하다고 한것이 이런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있던것이 아니겠는가고 주장하고있다.

이 노래는 초장에서는 《어서 당장 없어지라》고 호령하되 너는 지긋은 가짜해라고 단정하고 중장에서 너는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근본성질로 돌아가면 훌륭한 량심의 사자가 되리라고 일리며 종장에서는 딴 생각은 하지 말고 도술천으로 가서 미륵보살이나 모시고 길이 편안하게 지내라고 방향을 지시한것으로 된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기승전결의 형식에 맞는 굴곡을 가진 점이 다른 민요체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주장하고있다.

③의 경우에 독해에서 일부 문제점을 가지고있기는 하지만 향가전반을 그 시가형식상 특징인 3구 6명의 각도에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있는 점에서 다른 독해자에 비해 긍정적인 특색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향가를 독해함에 있어서 창작당시의 언어에 대한 정확한 추정과 함께 이것이 독특한 형식을 가진 시가체라는데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도술가》를 독해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

실마리어 향가, 도술가